

KDB DAEWOO DAILY

2012. 11. 21 (수)

코스피지수 (11/20)	1,890.18P(+12.08P)
코스닥지수 (11/20)	496.66P(+3.52P)
KOSPI200지수 12월물	248.30P(+1.80P)
중국상해종합지수 (11/20)	2,008.92P(-8.06P)
NIKKEI225지수 (11/20)	9,142.64P(-10.56P)
원/달러 환율	1,082.20(-4.80)
국고채 수익률 (3년)	2.80(+0.01)
유가(WTI) (11/20 23:05)	88.05(-1.33)
국내주식형수익증권(11/19)	687,481억원(+1,507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1/19)	268,662억원(-195억원)
고객예탁금(11/19)	168,175억원(-3,109억원)
신용잔고(11/19)	44,620억원(-429억원)

기술적 시장분석

산타는 립스틱을 바르고, 시탕을 물고 온다!

주간 글로벌 마켓 네비게이션

‘세금 절벽’에 대한 고민

기업분석

삼성전자[매수] - 송중호: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쓴다!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산타는 립스틱을 바르고, 사탕을 물고 온다!

국내증시는 이번 주 들어 제한적이지만,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다. KOSPI는 이격도, ADVR 등 보조지표 및 방향성 지표로 보아 단기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선인 60일선을 돌파하기까지 상승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연말 지수의 방향성은 삼성전자를 통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1,850 ~ 1,940p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한 시장대응이 유효해 보인다. IT 및 필수소비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를 권한다.

KOSPI,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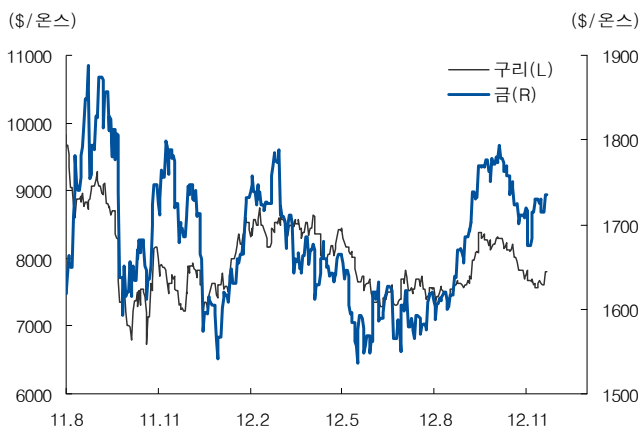
KOSPI는 지난 주 과매도권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였다.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걸쳐 증시에 반영되었고, 주 후반 시작되는 미국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시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KOSPI는 9월 중순 이후 지속된 단기 하락추세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증시의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올해 증시에선 산타가 립스틱을 바르고, 사탕을 물고 오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경기불황일 때 저가임에도 소비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 잘 판매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립스틱효과’라고 부른다. “불황은 충치와 함께 온다”라는 월가의 격언과 같이 불황이 지속될수록, 사탕 판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말 세븐일레븐이 올 한해 과일향 사탕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6%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OSPI, 방향성지표로 보면 저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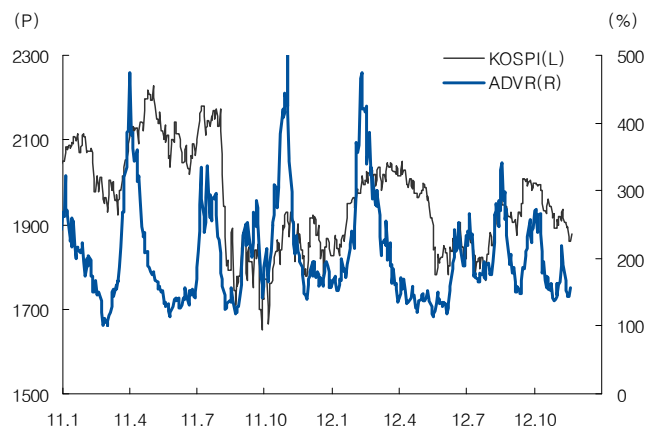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 좀더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가격은 하락추세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시장과 밀접한 방향성을 갖는 구리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있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유보적이다<그림1>. KOSPI의 방향성 지표인 ADVR은 저점 형성 후 반등하고 있다<그림2>.

그림 1. 금가격과 구리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KOSPI와 ADVR



자료: KRX,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저점 확인 중

글로벌 증시, 조정흐름 가운데
일부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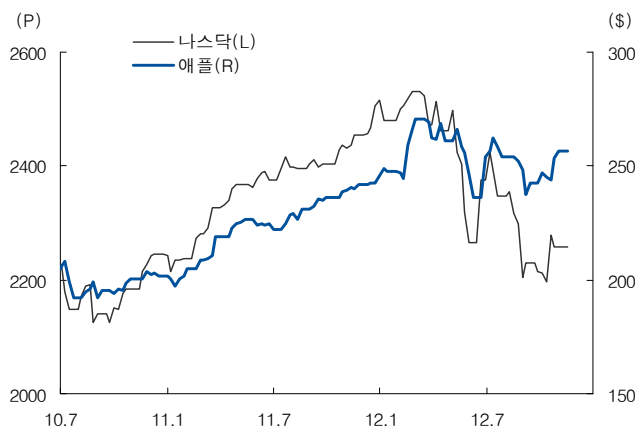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는 미국 정치권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으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을 보이고 있다. 미 증시의 경우 지난 주말에 이어 전일 재정 절벽 해결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증시, 소비시즌을 앞두고
애플의 주가에 주목

연말 소비시즌의 개막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은 애플을 선두로 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다. 애플은 전일 7.21% 급등하였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9월 고점 당시와 비교해 여전히 20% 가량 낮은 수준이기에 상승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 애플의 상승은 나스닥지수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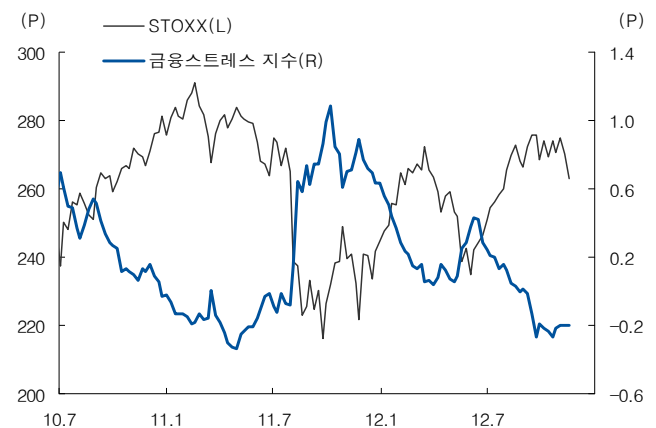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600지수는 단기적으로 급락하며 조정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감으로 모멘텀을 찾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스트레스지수는 바닥권인 만큼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4>. 추세로 판단해 보면 유로존은 다소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나스닥지수와 애플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스톡스 유럽600지수와 금융스트레스 지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상해 종합지수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삼성전자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상해종합지수는 이번 주 들어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장중 2000선 아래로 하락하였다. 심리적 지지선이자 중기 박스권 하단인 2000선에서 반등하여 '2중 바닥'을 형성할 지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하고 있어 반등이 예상된다<그림5>.

KOSPI, 단기적으로 1,850 ~ 1,940p에서의 움직임 예상

KOSPI,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

국내증시는 이번 주 들어 제한적이지만,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지속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들의 순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으나 저점 매수로, 지수방어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KOSPI는 이격도, ADVR 등 보조지표 및 방향성 지표로 보아 단기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선인 60일선을 돌파하기까지 상승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단기적으로는 1,850 ~ 1,940p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한 시장대응이 유효해 보인다. IT 및 필수소비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를 권한다<그림7>.

KOSPI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는 것은 최근 들어 변동성이 축소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다. 삼성전자는 패턴상 대칭삼각형을 형성해 가고 있다. 패턴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어 조만간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지수의 방향성은 삼성전자를 통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6>.

KOSPI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KOSDAQ시장이 탄력적일 듯

단기적으로 KOSPI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중소형주 중심의 KOSDAQ시장은 얼어붙은 심리가 회복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저점을 확인한 만큼 거래량이 수반되어 준다면 빠른 반등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480 ~ 525p에서의 움직임이 기대된다<그림8>.

그림 7. KOSPI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KOSDAQ지수 일간차트



자료: Qway NE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세금 절벽’에 대한 고민

대선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는, ‘재정 절벽’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 인상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세금 절벽’을 우려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의 영향도 크다.

인상폭에 대해서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율 인상은 올해 수익을 확정 짓기 위한 선제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단기 수급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9월 고점 이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기반영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매도 실익은 크지 않으며, 내년에 세율이 확정된다면 세율 인상을 피하기 위한 주식의 추가 매도 강도 역시 약화될 것이다.

그보다는 주식의 배당수익률과 채권 장기금리의 역전 현상에 주목한다. 자산간의 배분 관점에서 볼 때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세금 절벽’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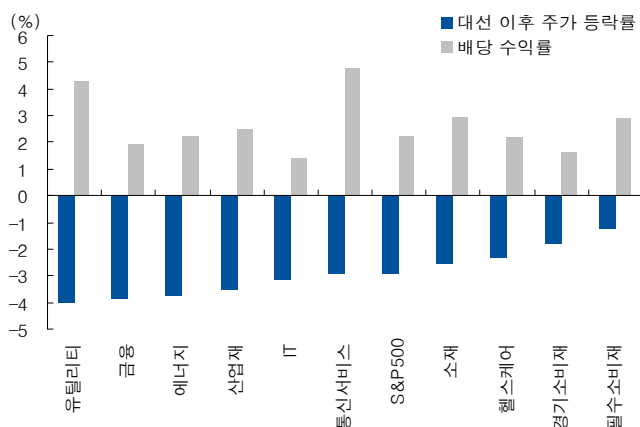
대선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대선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약세를 이어갔다. 표면적으로는 대선이 끝나고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해석은 조금 달라진다.

‘세금 절벽’을 우려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주가 하락을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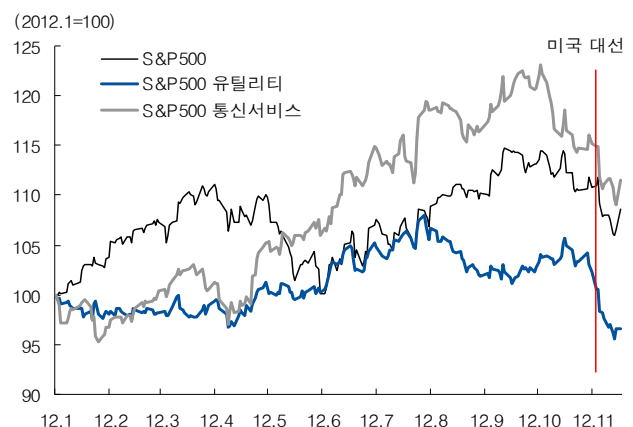
S&P500을 구성하는 섹터들의 대선 이후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면 경기민감주 외에 유틸리티와 통신서비스 섹터의 낙폭이 눈에 띈다.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이들 섹터의 부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재정 절벽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 인상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세금 절벽’을 우려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주가 약세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美 대선 이후 S&P500 섹터별 주가 등락률 및 배당 수익률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美 대선 이후 고배당섹터(유틸리티, 통신)의 상대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본이득세율 23.8%,
배당소득세율 최고 43.4%까지
인상 우려

수익을 확정짓기 위한 선제적인
매도세는 수급 측면에서 부정적

자본이득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현 주가에 거의
반영

‘세금 절벽’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현재 미국의 자본이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은 공히 15%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자본이득세율은 23.8%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당소득세율 역시 2013년 이후 확정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고 세율인 39.6%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오바마 케어’에 따른 건강증진세 3.8%가 가산될 경우 최고 43.4%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합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단 **자본이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 인상은 증시의 단기 수급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이다**.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와 동일한 주가 수준이라 하더라도 세금 인상분만큼의 손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의 수익을 확정 짓기 위한 선제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금 절벽’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까? 종목의 매수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수익률과 세후 실현 이익은 달라지겠지만 몇 가지 가정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S&P500 지수와 Apple을 대상으로, 상승 국면의 시작이었던 2009년 3월(A)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올해 9월의 고점(B)에서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자본이득세율이 현행 15%에서 23.8%로 인상된 내년에 올 해와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한 가격대(P)를 역산해서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즉 자본이득세율의 인상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익을 주는 가격대는, S&P500의 경우 지난 9월의 고점에 비해 -5.6%, Apple의 경우 -9.1% 낮다고 볼 수 있다. 현재 9월 고점 대비 S&P500은 -5.4% 하락했으며, Apple은 -19.4% 하락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자본이득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주가에 거의 반영되었다는 판단이다.**

표 1. 자본이득세율 인상에 따른 적정가격 추정

(단위: 달러,P)

	매수가(A)	매도가(B)	자본 이득(C=B-A)	자본이득세율(D)	자본이득세(E=C*D)	세후 실현 이익(F=C-E)
S&P500	676.5	역산한 P=1384.1	707.5	15.0%	106.1	601.4
	676.5	1465.8	789.2	23.8%	187.8	601.4
		P/B = -5.6%				
APPLE	83.1	역산한 P=638.0	554.9	15.0%	83.2	471.7
	83.1	702.1	619.0	23.8%	147.3	471.7
		P/B = -9.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 시점에서 세율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 매도의 실익은 크지 않아

세율 확정시 매도 강도는 오히려 악화될 전망

과거 1986년과 1993년의 세율 인상 국면에서도 주가 조정은 일시적

‘세금 절벽’의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내년 세율이 인상되면 세후 실현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올해 말 주식 보유의 유인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율이 43.4%까지 급등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이며, 이미 대선 이후 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기반영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 매도로서의 실익 역시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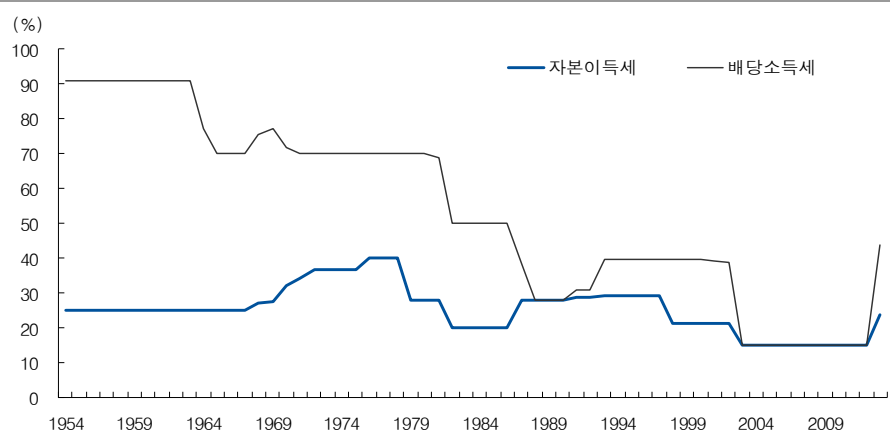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매물 출회는 올해의 수익을 확정 짓기 위한 매도세라는 점에서, **내년에 세율이 확정된다면(게다가 최악의 상황을 피해 세율이 당초 계획한 수준에서 더 낮춰진다면) 세율 인상을 피하기 위한 주식의 매도 강도는 악화될 것이다.**

이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세법의 역사상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6년(Tax Reform Act of 1986)과 1993년(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에는 각각 자본이득세(20% → 28%)와 배당소득세(31% → 39.6%)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당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두 국면 모두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는 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시적인 하락에 그쳤으며, 오히려 법안이 발효된 해에는 세율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 3. 미국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 추이



주: 2013년은 인상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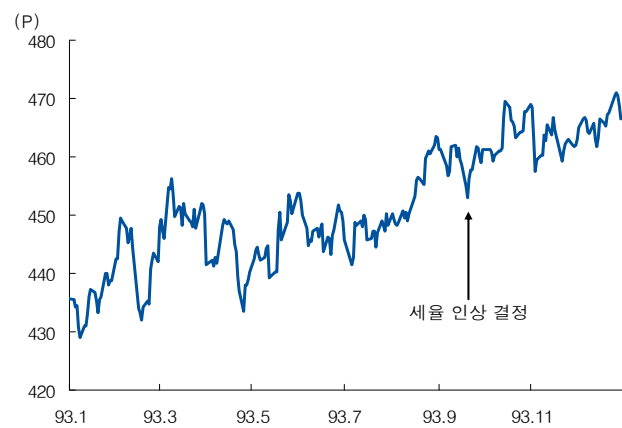
자료: Treasury Department,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1986년 자본이득세 인상 당시의 S&P500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1993년 배당소득세 인상 당시의 S&P500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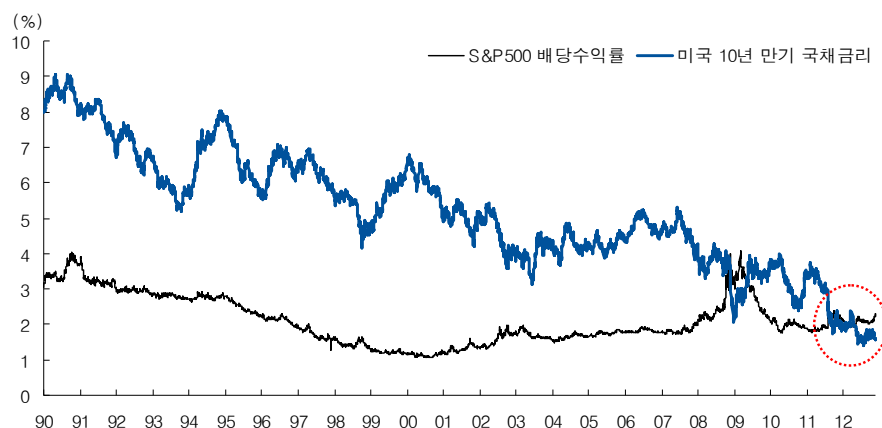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배당수익률과 채권 장기금리의 역전 현상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배당수익률의 레벨이다.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주식의 배당수익률과 채권 장기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S&P500의 배당수익률은 2.2%인 반면, 잇따른 양적완화 정책과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 수준까지 떨어져있다. 이는 **자산간의 배분 관점에서 볼 때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인 동시에, 여전히 배당주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림 6. S&P500 배당수익률과 미국 국채 금리: 배당 수익의 상대적 우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재정절벽 이슈보다 실물 경기의 개선 여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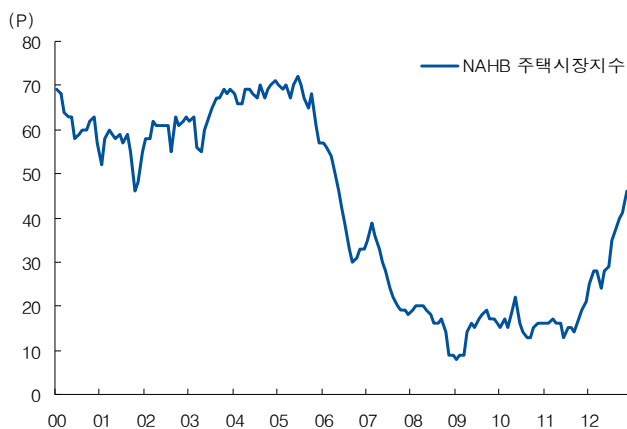
주택시장 회복과 심리지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연말 소비 여건은 우려보다는 양호

열쇠는 ‘주택 경기’와 ‘소비 심리’

지난 9월의 고점 이후 대선 이후까지 S&P500 지수는 -5.4% 하락했으며, 동 기간 미국 GDP의 약 5.7%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향후 양당간의 합의 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치닫지 않는다면 재정절벽 이슈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정치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 할 수 있겠으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에만 경도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물 경기의 개선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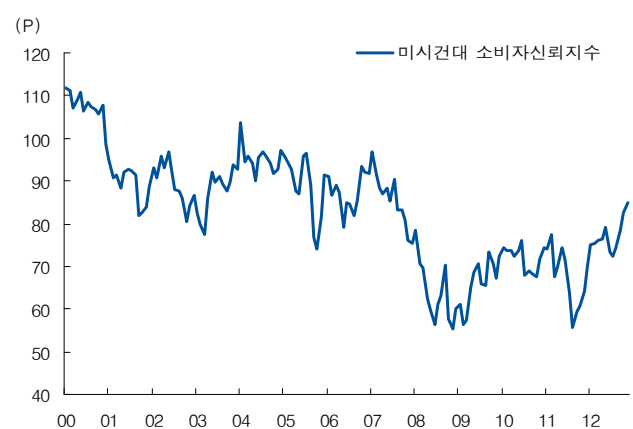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경기와 소비 회복의 지속 여부이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미국 GDP성장률 개선을 이끈 것은 소비와 주거용 투자 확대였다. 재정절벽 이슈에 가려져있지만 체감경기뿐만 아니라 착공 및 허가건수의 증가, 재고 부담 완화 등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주택시장 회복과 심리지수 개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연말 소비 여건은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7. NAHB 주택시장 지수: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소비 심리 여전히 양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005930)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쓴다!

매수 (Maintain)

목표주가(12M)	1,900,000
현재주가(12/11/20,원)	1,364,000
상승여력(%)	39.3
EPS 성장률(12F,%)	78.0
MKT EPS 성장률(12F,%)	9.5
P/E(12F,x)	9.8
MKT P/E(12F,x)	10.0
KOSPI	1,890.18
시가총액(십억원)	200,916
발행주식수(백만주)	170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295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81
배당수익률(12F,%)	0.6
유동주식비율(%)	70.8
52주 최저가(원)	921,000
52주 최고가(원)	1,418,000
베타(12M,일간수익률)	1.46
주가변동성(12M daily,%,SD)	2.0
외국인 보유비중(%)	43.6

주요주주

이건희 외 11인(17.64%)
삼성전자 자사주(11.55%)
국민연금관리공단(6%)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8	17.0	41.6
상대주가	7.5	10.9	38.9

주요사업

반도체, 핸드셋, LCD,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

What's New: 4Q12 예상 영업이익 8.3조원으로 상향

삼성전자의 4분기 예상 실적을 상향 조정한다. 4Q12 실적은 매출액 58.0조원(+11.2% QoQ, +22.7% YoY), 영업이익 8.3조원(+2.5% QoQ, +57.1% YoY, 영업이익률 14.3%)으로 예상된다. 기존 영업이익 예상치는 7.6조원이었다. 12월 미국 소송 판결에 따른 충당금 반영 등을 제외한 4Q12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9.1조원(기존 8.4조원)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예상 영업이익은 IM(통신) 6.0조원, 반도체 1.5조원, DP(디스플레이) 1.2조원, CE(가전) 0.4조원이다.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6,200만대로 예상하며,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2는 각각 1,500만대, 1,200만대 판매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High-end 스마트폰 비중 확대에 따라 IM 부문 수익성은 다시 한번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Catalyst: 놀라운 성장 스토리, 2013년에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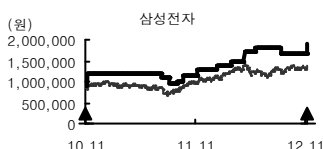
IM부문 실적 호조를 반영하여 2013년 실적 전망을 상향한다. 내년도 실적은 매출액 234.9조원(+15.7% YoY), 영업이익 36.4조원(+25.5% YoY, 영업이익률 15.5%)로 예상된다. 부문별 이익 영업이익 예상치는 IM 22조원(+10% YoY), 반도체 7.8조원(+71% YoY), DP 5.0조원(+50% YoY), CE 1.6조원(-25% YoY)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실적 성장의 주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내년에도 High-end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IM 부문의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하였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Mass Customization 전략은 서서히 위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년 2월에 발표가 예상되는 갤럭시 S4는 특히 폼팩터 측면에서 기존의 스마트폰 제품들을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최근 AP 가격 향상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 확대는 세트-부품업체 간의 게임의 Rule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요 부품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은 점차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문의 분기 영업이익은 2Q13 이후 2조원 이상으로 회복, 내년도 실적 성장 모멘텀에 가세할 전망이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154,630	17,297	11.2	15,799	92,863	28,015	907	20.4	10.2	1.8	5.3
12/11	165,002	16,250	9.9	13,359	78,522	29,047	2,497	14.6	13.5	1.8	5.7
12/12F	203,087	29,016	14.3	23,774	139,738	44,984	10,124	21.7	9.8	1.9	4.6
12/13F	234,926	36,410	15.5	30,536	179,482	52,849	21,140	22.4	7.6	1.5	3.6
12/14F	264,656	40,816	15.4	33,863	199,036	54,493	43,726	20.2	6.9	1.2	2.7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삼성전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삼성전자: 회사가 LP업무를 수행하는 ELW의 기초자산 발행법인. 삼성전자: 회사가 발행한 ELW의 기초자산 발행 법인.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자의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aluation: 실적 상향 Valuation 반영. 목표주가 1,900,000원으로 상향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의 1,650,000원에서 1,900,000원으로 15% 상향한다. 1)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의 33.0조원에서 36.4조원으로 10% 상향하였으며, 2) 내년도 P/B 2.1배, P/E 10.6배, Sum of Parts EV/EBITDA 4.3배를 적용하였다. 현 Valuation은 2013년 P/B 1.47배, P/E 7.6배에 불과하다. 동사의 역사적 P/B 밴드 1.5~2.0배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이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전자의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

(십억원, %)

	1Q12	2Q12	3Q12	4Q12F	1Q13F	2Q13F	3Q13F	4Q13F	2010	2011	2012F	2013F
매출액	45,271	47,597	52,177	58,042	54,154	56,668	60,898	63,207	154,630	165,002	203,087	234,926
% QoQ	-4.3	5.1	9.6	11.2	-6.7	4.6	7.5	3.8				
% YoY	22.4	20.7	26.4	22.7	19.6	19.1	16.7	8.9	13.4	6.7	23.1	15.7
IM	23,220	24,040	29,920	32,184	29,718	31,203	33,648	34,577	41,190	67,440	109,364	129,146
CE	10,670	12,150	11,600	14,395	12,102	12,631	14,155	15,374	57,250	47,020	48,815	54,262
반도체	7,980	8,600	8,712	10,586	10,792	11,261	11,630	11,783	37,640	36,990	35,878	45,467
-메모리	4,890	5,420	5,220	6,558	6,566	6,705	6,740	6,451	25,830	22,710	22,088	26,462
DRAM	3,858	4,309	4,061	4,055	4,027	4,244	4,385	4,284	19,441	16,522	16,283	16,940
NAND	2,147	2,440	2,403	3,231	3,269	3,206	3,103	2,883	9,452	10,270	10,221	12,461
- Non-Memory	3,090	3,180	3,492	4,028	4,226	4,556	4,891	5,332	11,810	14,280	13,790	19,005
DP	8,540	8,250	8,460	8,943	9,066	9,447	9,926	10,256	29,910	29,230	34,193	38,695
영업이익	5,850	6,724	8,120	8,321	8,048	9,047	10,068	9,249	17,297	16,250	29,016	36,410
% QoQ	10.5	14.9	20.8	2.5	-3.3	12.4	11.3	-8.1				
% YoY	98.4	79.2	90.9	57.1	37.6	34.5	24	11.1	58.3	-6.1	78.6	25.5
IM	4,270	4,190	5,630	5,954	4,910	5,562	5,933	5,634	4,300	8,130	20,044	22,039
CE	530	760	430	417	328	435	491	343	450	1,550	2,137	1,597
반도체	760	1,110	1,150	1,524	1,711	2,001	2,168	1,877	10,120	7,330	4,544	7,757
-메모리	594	996	862	1,167	1,259	1,466	1,530	1,224	8,662	4,218	3,619	5,479
DRAM	657	796	556	616	578	736	911	771	6,645	3,522	2,626	2,995
NAND	316	376	457	757	904	989	889	669	3,085	1,946	1,907	3,451
- Non-Memory	166	114	394	496	576	626	717	780	1,458	3,112	1,171	2,699
DP	280	750	1,090	1,227	1,149	1,198	1,375	1,295	1,990	-750	3,347	5,017
영업이익률	12.90%	14.1	15.6	14.3	14.9	16	16.5	14.6	11.2	9.8	14.3	15.5
IM	18.4	17.4	18.8	18.5	16.5	17.8	17.6	16.3	10.4	12.1	18.3	17.1
CE	5	6.3	3.7	2.9	2.7	3.4	3.5	2.2	0.8	3.3	4.4	2.9
반도체	9.5	12.9	13.2	14.4	15.9	17.8	18.6	15.9	26.9	19.8	12.7	17.1
-메모리	12.1	18.4	16.5	17.8	19.2	21.9	22.7	19	33.5	18.6	16.4	20.7
DRAM	17	18.5	13.7	15.2	14.3	17.3	20.8	18	34.2	21.3	16.1	17.7
NAND	14.7	15.4	19	23.4	27.6	30.8	28.7	23.2	32.6	19	18.7	27.7
- Non-Memory	5.4	3.6	11.3	12.3	13.6	13.7	14.7	14.6	12.3	21.8	8.5	14.2
DP	3.3	9.1	12.9	13.7	12.7	12.7	13.9	12.6	6.7	-2.6	9.8	13
순이익	5,049	5,193	6,562	7,302	6,229	6,828	8,353	9,126	15,799	13,359	23,774	30,536
% QoQ	29.9	2.9	26.4	11.3	-14.7	9.6	22.3	9.3				
% YoY	86	50.2	98.8	87.8	23.4	31.5	27.3	25	70.1	-15.4	78	28.4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삼성전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558.8 / 5일 6034.7)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503.6 / 5일 -5937.1)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전기전자	627.1	3,858.5	운수장비	-697.1	1,156.5	전기전자	952.1	-2,600.8	금융업	-205.9	-746.8
서비스업	287.7	-74.6	금융업	-107.1	-310.1	운수장비	63.6	-930.0	전기가스	-102.4	151.4
화학	175.2	-343.6	보험업	-89.1	101.2	화학	19.3	-134.5	의약품	-76.0	-41.8
통신업	101.2	858.9	운수창고	-82.1	-115.3	보험업	2.4	-56.5	서비스업	-67.7	-347.6
유통업	91.7	586.3	음식료	-45.2	353.0	음식료	1.8	-270.3	유통업	-41.0	-140.0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삼성전자	454.1	1,935.1	기아차	-341.8	211.8	삼성전자	860.7	-2,102.9	LG전자	-251.1	-531.3
KODEX 200	224.5	1,024.3	현대차	-214.1	830.8	LG디스플레이	171.6	-134.1	KODEX 200	-214.2	-1,122.4
NHN	168.0	133.6	현대모비스	-128.7	191.2	현대차	153.2	-490.3	신한지주	-118.1	-57.1
KODEX레버리지	143.4	-976.5	휠라코리아	-80.7	-36.1	삼성전자우	140.3	56.5	GS	-90.2	1.6
LG전자	104.7	1,084.7	KT&G	-54.7	70.3	NHN	139.9	-20.9	LG	-84.0	-245.9
SK텔레콤	91.1	456.6	호텔신라	-44.4	-4.8	KODEX레버리지	121.4	-50.2	SK텔레콤	-82.7	-428.4
금호석유	90.4	-235.8	만도	-42.9	41.9	현대위아	83.0	-72.9	한국가스공사	-81.6	-25.0
LG이노텍	86.1	122.9	삼성전자우	-42.2	15.8	하나금융지주	76.7	-196.8	현대중공업	-74.1	-42.8
현대백화점	81.7	163.3	삼성엔지니어링	-41.9	-101.4	GS건설	56.6	-301.3	POSCO	-63.2	-314.4
GS	71.2	41.4	GS건설	-38.4	-181.9	강원랜드	55.9	-3.5	기아차	-58.5	-171.2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55.4 / 5일 -664.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37.9 / 5일 255.8)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디지털컨텐츠	204.0	7.9	IT부품	-19.6	-157.2	제약	25.0	-122.8	IT부품	-76.8	69.7
오락.문화	44.6	-1,446.4	화학	-14.0	-71.1	오락.문화	13.2	304.6	반도체	-64.7	-67.5
소프트웨어	29.3	47.2	기계.장비	-11.4	-66.9	의료.정밀기기	5.7	33.1	소프트웨어	-23.0	-44.4
방송서비스	11.4	49.6	의료.정밀기기	-8.9	50.4	음식료.담배	3.9	21.2	디지털컨텐츠	-19.7	-36.5
금속	9.9	1.6	비금속	-5.0	1.1	정보기기	2.2	0.9	금속	-19.0	-105.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컴투스	137.5	66.1	서울반도체	-23.5	112.5	셀트리온	29.1	-72.7	서울반도체	-30.7	11.0
에스엠	52.5	-1,077.1	메디톡스	-19.1	-1.6	게임빌	26.1	29.9	컴투스	-21.7	-56.3
게임빌	52.2	-34.2	세코닉스	-16.4	19.5	세코닉스	24.6	0.8	에스엠	-21.0	123.4
골프존	25.4	21.8	파트론	-16.1	20.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1	55.5	인탑스	-16.3	-8.7
네패스	21.4	-36.3	아바텍	-10.7	13.9	파라다이스	17.0	119.6	멜파스	-12.5	1.0
옵트론텍	21.4	-2.6	바이오텍	-10.3	-16.2	차바이오텍	14.4	3.9	오스템임플란트	-10.6	-7.3
위메이드	18.8	59.7	이라이콤	-9.7	-19.8	이라이콤	11.6	23.1	플렉스컴	-10.3	21.7
코오롱생명과학	18.3	10.4	씨유메디칼	-9.2	-16.4	아바텍	9.2	13.3	이노칩	-10.1	-2.9
씨젠	16.6	-86.8	비에이치아이	-8.5	-3.9	매일유업	6.5	29.2	실리콘웍스	-9.6	23.2
GS홈쇼핑	12.3	-2.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3	-203.7	SK브로드밴드	6.0	8.6	루멘스	-9.3	-45.7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19,797.8	KODEX 200	-47,967.3	LG디스플레이	10,570.5	현대차	-21,514.2
NHN	10,606.8	기아차	-14,211.5	삼성전자	10,528.7	기아차	-12,632.5
현대위아	5,216.7	KT&G	-5,068.5	LG이노텍	4,311.0	현대모비스	-11,044.2
LG전자	4,419.2	호텔신라	-4,724.6	SK하이닉스	4,183.9	신한지주	-4,356.9
금호석유	3,943.3	현대모비스	-4,553.6	GS	4,105.9	기업은행	-3,474.4
SK텔레콤	3,808.1	삼성화재	-4,461.9	SBS미디어홀딩스	4,100.7	현대글로벌비스	-3,450.1
하이트진로	3,371.7	휠라코리아	-3,355.6	현대백화점	3,615.1	엔씨소프트	-3,183.2
LG유플러스	3,369.6	SK하이닉스	-2,842.6	롯데쇼핑	3,446.9	호남석유	-2,794.8
현대제철	2,841.5	만도	-2,550.8	NHN	3,357.0	대림산업	-2,678.8
현대글로벌비스	2,712.3	SKC	-2,061.0	LS	3,312.3	키움증권	-2,188.3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현대건설	1,198.3	빙그레	-2,041.1	NHN	4,647.3	기아차	-4,568.7
현대모비스	1,033.1	우리금융	-1,510.3	맥쿼리인프라	3,940.0	현대차	-2,990.7
롯데쇼핑	1,026.9	NHN	-1,437.4	LG이노텍	3,390.7	KT	-2,674.7
LG	950.5	KODEX 레버리지	-1,018.4	LG디스플레이	2,823.7	현대모비스	-1,989.4
SK텔레콤	837.8	현대차	-843.2	LG화학	2,685.5	하나금융지주	-1,523.4
현대백화점	828.8	삼성전기	-765.3	호남석유	2,225.5	현대글로벌비스	-1,430.4
제일모직	803.0	LG디스플레이	-760.8	LG전자	1,792.3	유한양행	-1,423.8
KT	641.3	GS리테일	-759.7	삼성전기	1,734.1	아모레G	-1,411.5
현대위아	543.8	한진해운	-747.9	KODEX 200	1,686.6	동부화재	-1,307.9
SK	447.3	GS건설	-636.6	롯데쇼핑	1,559.1	스카이라이프	-1,279.9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86,071.5	45,408.0	기아차	5,854.5	34,180.1
NHN	13,991.4	16,801.5	삼성카드	5,473.0	3,402.1
KODEX 레버리지	12,139.3	14,338.1	지엠비코리아	646.7	3,021.1
LG화학	2,604.8	5,371.9	동부화재	957.3	2,722.1
고려아연	3,913.1	3,513.4	현대글로벌비스	1,449.2	2,162.7
LG유플러스	4,104.0	3,478.9	삼성화재	1,447.8	2,007.2
호남석유	2,662.1	2,868.2	기업은행	1,632.2	1,932.9
삼성중공업	2,901.6	2,295.9	SK이노베이션	2,391.6	1,568.4
엔씨소프트	4,512.5	1,971.4	한국전력	2,008.1	1,553.2
현대위아	8,301.3	1,668.6	KB금융	2,508.2	1,368.2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컴투스	3,173.7	제이브이엠	-2,365.2	컴투스	5,268.6	조이맥스	-858.5
씨젠	1,609.5	세코닉스	-1,545.7	네패스	1,621.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25.3
골프존	1,534.8	한글과컴퓨터	-994.1	제이브이엠	1,350.0	제닉	-574.8
게임빌	1,144.8	서울반도체	-948.1	에스엠	1,340.8	웹젠	-547.1
실리콘웍스	1,064.0	메디톡스	-938.0	게임빌	1,189.3	SK브로드밴드	-489.3
제닉	810.5	파트론	-831.8	포스코엠텍	865.9	CJ오쇼핑	-391.3
인터파크	795.8	포스코엠텍	-716.4	코오롱생명과학	650.4	비에이치아이	-381.9
옵트론텍	639.0	인터플렉스	-714.1	한글과컴퓨터	624.0	링크웨어	-326.6
에스에프에이	574.0	이엘케이	-608.1	멜파스	589.2	알에프세미	-324.5
위메이드	559.8	네오위즈인터넷	-574.8	다음	582.6	이오테크닉스	-323.9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컴투스	829.7	포스코엠텍	-1,441.5	에스엠	1,960.2	실리콘웍스	-1,170.3
오스템임플란트	366.9	서울반도체	-840.2	네패스	1,897.7	CJ E&M	-765.5
옵트론텍	356.4	플렉스컴	-309.4	GS홈쇼핑	1,046.0	바이오랜드	-735.8
씨젠	350.4	플랜티넷	-211.7	포스코엠텍	965.6	모두투어	-553.7
에스엠	268.3	위메이드	-211.2	JCE	569.3	파트론	-517.8
게임빌	147.7	매일유업	-186.4	컴투스	560.6	포스코엠텍	-440.8
하이록코리아	111.4	엠에스오토텍	-186.0	코오롱생명과학	477.7	에스에프에이	-354.3
디지텍시스템	100.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4.5	씨티씨바이오	446.6	위메이드	-278.6
농우바이오	99.3	한성엘컴텍	-76.2	CJ오쇼핑	411.2	플랜티넷	-224.4
루멘스	96.9	원익머트리얼즈	-62.9	골프존	409.2	서부T&D	-195.5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게임빌	2,605.3	5,222.7	서울반도체	3,074.5	2,350.4
골프존	238.4	2,537.5	메디톡스	424.1	1,910.6
옵트론텍	577.4	2,137.2	파트론	31.5	1,605.1
씨젠	130.5	1,656.0	씨유메디칼	60.8	918.6
씨티씨바이오	164.7	983.5	이엘케이	841.3	760.3
다음	548.0	660.8	인터플렉스	591.5	740.4
메가스터디	477.8	471.7	나이스정보통신	705.6	282.4
네이블	110.5	432.4	플렉스컴	1,029.7	192.9
휴비츠	144.7	399.1	실리콘웍스	956.4	150.1
코텍	371.9	147.1	라이브플렉스	641.9	132.7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황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212	1303	1306	KSPGCH3S
기 준 가 격	245.82	246.50	245.75	247.30	-1.05
시 가	248.42	248.75	247.70	247.30	-0.70
고 가	248.55	248.75	247.85	247.30	-0.70
저 가	247.11	247.45	246.45	247.30	-1.10
종 가	247.72	248.30	247.40	247.30	-1.05
전 일 대 비	1.90	1.80	1.65	-	-
이 른 가 격	-	248.18	247.33	248.84	-0.85
총 약 정 수 량 *	55,952	130,331	463	-	220
총 약 정 금 액 **	2,711,025	16,165,972	57,199	-	54,510
미 결 제 약 정	-	102279 (-1)	7180 (302)	1149 (0)	-
배 당 지 수 ***	2.85% (CD금리)	0.00	2.62	2.86	-
반 응 배 수		0.90	0.97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390			
전 일 대 비		-0.053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GCH3S : 12월물과 3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57,276	34,393	34,095	495	1,287	569	1,430	1,249
	매 도	55,794	35,968	33,526	365	1,817	468	1,443	1,413
	비 중	43.2%	26.9%	25.9%	0.3%	1.2%	0.4%	1.1%	1.0%
순 매 수 누 적	전 일	1,482	-1,575	569	130	-530	101	-13	-164
	누 적	-17,544	4,052	3,921	-1,230	8,923	-1,087	423	2,543
매 매 편 향 강 도		1.31%	-2.24%	0.84%	15.12%	-17.07%	9.74%	-0.45%	-6.16%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200	0.81%	21	529	0.00%	NAV (ETF-NAV)%	24,827	24,861
KODEX200	200	0.81%	2,259	56,080	3.81%		0.15%	-0.10%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1%	0.00%
증가/100	248.65	248.35	247.91	248.30	248.35	설정주수	0	1300
eff.delta	1.05	1.05	2.30	0.95	2.29	환매주수	0	400
diff/basis	0.38%	0.25%	0.08%	0.58	0.63	상장주수	11000	1616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 표	0.155	콜 평균	0.146	풋 평균	0.161	역사적 (5일)	14.7	역사적 (20일)	14.2
내 재 변 동 성									
월 물 행 사 가 격		1212					01301		
		252.5	250.0	247.5	245.0	242.5	250.0	247.5	245.0
Call	가 격	2.00	2.97	4.25	5.65	7.55	4.05	5.10	6.45
	전 일 대 비	0.38	0.54	0.70	0.70	1.15	0.65	0.65	0.70
	내 재 변 동 성	14.70	15.00	15.40	15.30	16.40	15.50	15.60	16.00
	거 래 량	92,108	47,864	10,615	4,793	1,586	178	130	176
	미 결 제	17,095	15,629	6,711	5,640	2,208	773	457	610
Put	가 격	6.15	4.65	3.40	2.46	1.77	7.65	6.30	4.90
	전 일 대 비	-1.45	-1.30	-1.15	-0.94	-0.67	-0.90	-1.05	-1.20
	내 재 변 동 성	14.10	14.40	14.70	15.30	15.90	14.80	15.10	14.80
	거 래 량	2,007	6,537	9,901	71,825	62,859	33	133	162
	미 결 제	2,210	7,689	6,699	16,810	12,938	566	853	1,704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287,752	182,426	156,349	0	55	191	2,602	65
	매 도	281,783	190,239	154,746	1	101	90	2,407	73
	비 중	45.2%	29.6%	24.7%	0.0%	0.0%	0.0%	0.4%	0.0%
순매수 누적	전 일	5,969	-7,813	1,603	-1	-46	101	195	-8
	누 적	8,478	16,088	-19,093	-8	-1,401	-8	-3,924	-124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283,266	184,534	105,728	0	1,427	258	80	5,004
	매 도	283,255	178,365	111,318	0	1,427	252	76	5,604
	비 중	48.8%	31.3%	18.7%	0.0%	0.2%	0.0%	0.0%	0.9%
순매수 누적	전 일	11	6,169	-5,590	0	0	6	4	-600
	누 적	9,209	-6,192	1,788	0	80	-570	-133	-4,182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 식		주 가 지 수 선 물		주 가 지 수 CALL 옵션		주 가 지 수 PUT 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 익 거 래 잔 고 (백 만 원)	최 근 월 물	6,186,808	9,909,109	9,966,794	6,185,183	-	-	-	-
	기 타	-	-	-	-	-	-	-	-
	합 계	6,186,808	9,909,109	9,966,794	6,185,183	0	0	0	0
		프 로 그 램 매 도				프 로 그 램 매 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 로 그 램 매 매 동 향 (백 만 원)	차 익	1,487	0.40	92,439	2.51	1,889	0.51	118,800	3.23
	비 차 익	16,100	4.36	485,496	13.21	14,754	3.99	482,081	13.12
	합 계	17,588	4.76	577,936	15.72	16,644	4.51	600,881	16.35
베 이 시 스 수 준		0.575	0.475	0.375	0.275	0.175	0.075	-0.025	-0.125
차 익 성 순 매 수		17911	58206	25918	-204	-10090	-17175	-28231	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11/20 (화)	11/19 (월)	11/16 (금)	11/15 (목)	11/14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890.18	1,878.10	1,860.83	1,870.72	1,894.04
	이동평균	5일	1,878.77	1,878.68	1,883.23	1,891.95	1,900.69
		20일	1,901.37	1,903.20	1,906.38	1,910.53	1,914.95
		60일	1,936.34	1,936.83	1,937.91	1,939.15	1,940.36
	이격도	20일	99.41	98.68	97.61	97.92	98.91
		60일	97.62	96.97	96.02	96.47	97.61
	거래량		372,345	349,357	465,049	450,852	533,942
	거래대금		37,203.9	32,571.4	40,591.7	41,844.5	47,613.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05	0.98	1.31	1.27	1.50
	거래대금 회전율		0.34	0.30	0.38	0.39	0.43
	심리지표		40	40	30	40	40
	ADR		79.59	75.36	77.32	78.41	80.88
	이동평균	20일	81.67	82.01	82.39	82.82	83.16
	VR		99.48	80.53	66.20	66.28	67.11
코스닥시장			11/20 (화)	11/19 (월)	11/16 (금)	11/15 (목)	11/14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496.66	493.14	482.99	493.84	503.24
	이동평균	5일	493.97	497.40	503.06	510.44	515.48
		20일	508.55	509.92	511.42	513.21	514.22
		60일	516.80	516.81	516.92	517.08	517.05
	이격도	20일	97.66	96.71	94.44	96.23	97.86
		60일	96.10	95.42	93.44	95.51	97.33
	거래량		436,881	397,806	476,763	472,774	477,077
	거래대금		19,273.4	16,394.0	22,620.7	19,576.3	22,296.1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2.13	1.90	2.27	2.25	2.27
	거래대금 회전율		1.77	1.51	2.13	1.81	2.02
	심리지표		60	60	60	70	80
	ADR		78.26	74.44	78.70	78.64	81.91
	이동평균	20일	82.71	83.21	83.52	84.02	84.46
	VR		154.25	156.51	161.39	204.75	264.38
자금지표			11/20 (화)	11/19 (월)	11/16 (금)	11/15 (목)	11/14 (수)
국고채 수익률(3년)			2.80	2.79	2.77	2.78	2.79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33	3.32	3.30	3.31	3.31
원/달러 환율			1,082.20	1,087.00	1,092.20	1,086.70	1,084.90
CALL금리			2.72	2.71	2.72	2.72	2.72
주식형(국내)			-	687,481	685,974	685,934	688,211
주식형(해외)			-	268,662	268,857	269,124	269,335
채권형			-	458,393	458,872	459,529	459,227
고객예탁금			-	168,175	171,284	178,410	169,623
고객예탁금 회전율			-	29.12	36.91	34.43	41.21
순수예탁금 증감			-	-2,003	-7,276	9,286	101
미수금			-	1,482	1,538	1,491	1,427
신용잔고			-	44,620	45,049	45,010	45,315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